

태풍 할빈 전남 들녘...벼 1170ha 피해

수확 앞둔 농작물 직격탄 낙과·양식장 현장 조사중 피해 규모 크게 늘어날 듯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수확을 앞둔 남도 들녘을 휩쓸면서 광주·전남 곳곳에 생채기를 냈다. 전남도가 휴일이 지나고 섬지역 현장조사 및 집계 본격화되면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콩레이' 영향으로 영암지역 논 245ha에서 벼가 쓰러지고

147ha가 침수됐으며, 해남에서도 논 267ha가 침수되고 102ha에서 벼가 쓰러지는 등 수확을 앞둔 논 1170ha의 벼가 쓰러지는 등 피해 규모가 크게 늘어날 듯이다. 또 함평·장성지역 배·사과 농가 28ha에서 낙과 피해가 신고됐으며, 비닐하우스 25동이 파손됐다. 주택 침수 및 파손 5건, 축사 및 창고 피해 신고도 23건이나 접수됐다. 양식장 피해는 조사 중이지만 제19호 태풍 '솔릭' (파고 4.2m) 때보다 파도의 높이가 7.3m로 더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지역 항만·가로수 등 공공시설 80건의 태풍 피해가 접수됐다.

고흥과 완도 호안 도로 일부가 침수되는 등 항만 시설 7건, 가로등 1건, 간판 및 현수막 10건, 소규모 시설 7건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전남 광양시 광영동 광영고 앞 측대 일부가 무너지기도 했다. 6일 오전 4시 48분께 목포시 상동에서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가로수 신고만 55건이 들어왔다. 태풍으로 산사태나 침수가 우려돼 차량운행을 통제했던 구례군 광의면 시암재~산동면 성삼재 1.5km 구간과 문척면 월평교 일대 2.5km 구간은 전날 오후 5시부터 통행이 재개됐다. 목포와 여수·완도 55개 항로를 오가는

선박 92척과 광주·무안·여수공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 61편도 결항했으나 현재 모두 정상 운항 중이다. 광주에서도 남구 화장동 농경지 0.7ha가 물에 잠기고,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총 18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영암군 삼호읍 용양지구 간척지 피해현장을 둘러본 김영록 전남지사는 "피해 농가를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해 최대한 지원 방안을 하겠다"며 "쓰러진 벼 가운데 수확기에 접어들어 벼는 조기에 수확해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2 달뜨기 05:09
해질 18:07 달짐 17:54

한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12/22	보성	맑음	11/22
목포	맑음	14/21	순천	맑음	14/23
여수	맑음	15/21	영광	맑음	12/21
나주	맑음	11/22	진도	맑음	13/21
완도	맑음	13/23	전주	맑음	11/21
구례	맑음	11/22	군산	맑음	11/21
강진	맑음	13/23	남원	맑음	9/21
해남	맑음	12/22	흑산도	맑음	17/20
장성	맑음	11/22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
	먼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먼바다(동)	북서~북	0.5~2.0	북~북동	0.5~1.5
서부	먼바다(서)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생황지수

관심	☁
높음	☀
중음	☁
낮음	☀
미세먼지	☁

◇주간 날씨

9(화)	10(수)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	☀	☀	☀	☀	☀	☀
11/22	12/20	9/20	8/21	9/22	9/22	10/22



충장축제 거리퍼레이드 제15회 추억의 충장축제 3일째인 7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거리퍼레이드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충장축제는 '추억, 세대공감'을 주제로 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민주광장, 충장로·금남로·예술거리 일원에서 펼쳐진다. /최한혜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매년 평균 음주운전 뺑소니 92건 4명 숨져

광주와 전남에서 매년 평균 92건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67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주·전남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5319건 중 44.7% (2382건)는 재범사고였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 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지방청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지난 5년 동안 462건의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사망하고 864명이 다쳤다. 같은기간 전남에서는 459건의 음주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25명이 숨지고 8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에서 최근 3년간 (2015~2017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이 2회 이상 음주사고를 낸 상습범으로 조사됐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679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이 가운데 2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 낸 재범율은 42.7% (290건)였다. 3회 이상 재범도 100건이 나 됐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921건이 발생해 이 중 재범율이 44.8% (413건)로 나타났다. 3회 이상은 177건을 기록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전남교육감 선거 자원봉사 활동비 주고 받은 3명 고발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전남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법정수당 외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획사 대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힌 선거 캠프 관계자 B씨,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C씨도 함께 고발했다. 교육감 후보 측과 연설 차량 계약을 한 기획사 대표인 A씨는 지난 6~7월 선거

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들에게 660만원의 돈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 대가로 200만원 제공 의사를 표했고, C씨는 활동 대가로 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규정에 의한 수당, 실비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내년부터 고교 상피제 도입

교사·자녀 한 학교 배정 안해 광주·전남 56개교 같이 다녀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 상피제(相隣制)를 도입한다. 올 7월 불거진 광주 모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 대책의 하나로 현 중 3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9학년도부터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상피제

는 우선 고교 배정단계에서 이뤄진다. 고교 배정 전 학생들이 부모가 교사로 재직 중인 고교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교 배정 후 한 학교에 교사와 학생 배치가 확인될 경우 재배정 기회를 준다. 학생 배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원 인사를 통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조치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고교 교사를 중학교로 인사발령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공립고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7월 광주 모 사립고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관련 사고회견에서 시험지 등 학업성적 관리 강화와 함께 고교 상피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지난 8월 2022학년도 대입제 공개편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며 "고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전북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조치"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광주와 달리 농산어촌이 많은 전남의 경우 면이나 군단위에 고교가 한 두개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형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광주·전남에서는 교사 93명이 56개 고교에서 자녀 97명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광주는 20개 고교에서 29명의 교사가 자녀 29명이, 전남은 36개 고교에서 64명의 교사가 자녀 68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광양제철고의 경우 교사 7명이 자녀 7명과 같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분양 임대 1899-8947

분양 | (주)SB빌가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임대 | 기보종합건설

건우 New Square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피스,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임대 완료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분성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